

세탁기가 마지막 탈수를 끝내고 짧은 전자음을 울렸다. 다용도실 문을 여니 따뜻한 김과 은은한 세제 향이 천천히 밀려 나왔다. 빨래 바구니를 비우고 세제 캡슐을 하나 넣은 뒤 표준 코스를 누르는 일. 그 정도면 빨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집안일도 제법 나누어 하고 있다고 믿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생각이 달라진 것은 다용도실 선반 한쪽에 놓여 있던 얇은 종이 상자를 우연히 집어 들면서부터였다. 상자에는 '이염 방지 시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얀 부직포 한 장을 손바닥에 올려 놓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지 못했다. 그동안 흰 티셔츠와 검은 바지, 새 청바지와 밝은 수건을 함께 세탁기에 넣어도 한 번도 얼룩이 생기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세탁기의 성능 덕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깨끗한 빨래는 세탁기가 혼자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세탁기를 돌리기 전부터 색이 빠질 만한 옷을 먼저 살피고, 새 옷은 따로 모아 두고, 옷감의 재질을 구분하고 있었다. 나는 늘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일만 하면서도 빨래를 함께하고 있다고 쉽게 말해 왔다.

돌이켜 보면 집안일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았다. 세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기억하는 일, 비가 오는 날이면 빨래를 언제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일, 셔츠 깃이 상하지 않도록 뒤집어 넣는 일, 건조기에 넣으면 줄어들는 옷을 따로 빼 두는 일. 하나하나는 작고 사소해 보였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날은 빨간 운동복과 흰 셔츠를 함께 세탁기에 넣었던 날이었다. 세탁이 끝난 뒤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리고 급히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 하얀 셔츠가 아니라 세탁조 바닥에 축 늘어진 얇은 시트였다.

원래는 하얗던 시트가 짙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다른 옷으로 번졌어야 할 색을 혼자 받아낸 듯한 모습이었다. 물기를 머금은 채 구겨져 있는 그 작은 시트를 바라보는데 이상하게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평소에는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얇은 시트 한 장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시간을 대신 보여주는 것 같았다.

누군가는 늘 얼룩이 생기기 전에 먼저 걱정했고, 누군가는 내가 모르는 사이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막아 주었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게 끝난 결과만 보았지, 그 결과를 위해 쌓인 수많은 손길은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다.

그날 이후 빨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다.

빨래 바구니를 세탁기 앞에 내려놓으면 자연스레 옷을 색깔별로 나누게 되었고, 목 뒤에 붙은 작은 세탁 표시를 한 번씩 읽게 되었다. 세탁망을 꺼내는 일이 더 이상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았

고, 세제가 떨어져 가는 것도 전보다 먼저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서둘러 몇 번씩 확인해야 하는 날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빨래가 세탁기 안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게 되었다.

가사는 절반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같은 시간을 움직여도 누군가는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이 살피고, 먼저 생각한다. 평등은 정확히 같은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수고를 서로 알아보고 함께 떠받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나는 뒤늦게 배웠다.

요즘 저녁이면 우리는 함께 빨래를 낸다. 젖은 셔츠를 허공에 탁 털면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잠깐 반짝인다. 흰 셔츠도, 검은 바지도, 붉은 운동복도 나란히 건조대에 걸린다. 서로 다른 색의 옷들은 더 이상 섞이는 것이 두렵지 않다. 번질 것을 대신 머금어 준 작은 시트 덕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수고를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을은 어느 한쪽만 비추지 않는다. 건조대 위의 모든 옷에 같은 빛을 천천히 내려앉힌다.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함께 살아간다는 일도 어쩌면 그와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의 색을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색이 오래 제 빛을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살피는 일. 내가 배운 양성평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세탁조 바닥에 남아 있던 분홍빛 시트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